

좋은 소설집의 설 자리

김원일

소설가

교양도서의 대종은 소설책이다. 출판의 대중 역시 소설책이고, 출판사의 성장은 소설책 판매에 좌우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발언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교양서적은 소설뿐만이 아니라 역사·사회·정치·예술, 기타 문학 분야의 책도 많다. 그러나 짧은 시절 교양으로서의 좋은 소설의 감동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출판사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년 동안 역사인물소설책이 독서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의 대하소설들이다. 나의 견해로서는 무슨 책이든 절대적인 惡書는 없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는 독자의 긍정적 이해가 더 중요하고, 특히 책을 읽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문화적 사고를 생각할 때 그나마 활자문화와 가깝게 해준다는 하나만으로도 가상하다. 내용의 질이 낮고 말초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책도 계속 읽다보면 뻔한 내용과 결말에 싫증을 느껴 보다 윗질의 책을 선택하게 된다. 독서수준의 향상을 뜻한다. 독서수준의 향상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독서지도에 따른 홍보와 여론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고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론·민간단체·학교·관의 지속적인 계몽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꺼질 줄 모르게 읽히는 역사인물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류는 우선 우리 문장이 정확지 않다. 충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물의 심층적 내면을 묘사하지 않고, 삶의 진실한 양태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맺음의 필연성과 그 갈등에 따른 고뇌가 응축되어 있어야 독후감이 비로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여가의 선용이 시간 때우기로, 조직사회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가벼운 위안거리로, 말초적 자극과 흥분을 위해서 독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객의 전도이다. 물론 그런 읽을거리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도덕군자적 주장이 오늘의 개방사회에 통할 리도 없다. 그러나 양질의 소설책도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며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0년대와 달리 요즘은 좋은 중·단편집이 읽히지 않는다. 문학적으로 평가를 받은, 앞으로 한국의 소설을 이끌어갈 문단 데뷔 10년 전후의 소설가들이 힘들게 묶어낸 소설집은 초판 3천부의 소화가 힘들다. 출판을 맡아줄 출판사조차 잘 나서지 않는다. 문학지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발표지면조차 구하기가 힘들어 1년에 겨우 두세편씩 발표하여 서너 해만에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면 읽히지를 않으니 젊은 전업작가들이야말로 "문학이 뭐길래..." 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사는 그런 작가의 약점을 유혹하여 선금을 지불하며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을 담보로 '읽힐 만한 인기있는 전작장편'을 요구한다. 밥 먹기가 힘들니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데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문학적 신조와, 이 길로 뜻을 두었을 때의 열정이 그렇지 않으므로 가난을 감수하며 내 길로 걸겠다"는 젊은 작가들을 보면 참으로 그 당당함이 대견하다.

많이 팔리는 저자는 마스크가 가만두지 않는다. 대중 속으로 끌어내어 성가를 더욱 부추기니 악화가 철저히 양화를 구축하는 작태이다. 기준과 양식이 없는 전문가(?)들이 이 사회 지식산업체에 너무 많이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저질의 독자와 협잡하여 문화를 대중상업자본화한다.

좋은 소설은 각고의 문학수업을 거친 작가들의 시대와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진솔한 발언이요 예술의 정화이다. 당분이 넘치는 사회에 소금의 구실을 한다. 좋은 소설은 쓰지만 독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며 그 마음을 맑게 한다. 오염된 사회와 삶에 관한 그 잔잔한 울림을 외면하지 않고 귀기울일 때, 좋은 작가와 독자의 만남, 출판산업의 정립도 참다운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뉴스	2	'좋은 책' 어른·아이 별개·외
표지인물	4	이역땅에서 찾는 한민족의 원형적 삶 「재소한인」 펄낸 이광규교수
연중기획	6	퇴계학과 징비록 낳은 조선유학의 본산 책의 해에 찾아가는 책의 명소 ② - 도산서원과 유성룡생가
초점	8	출판계도 개혁과 지정 바람 거세게 분다 중복출판 채택료부조리 등 고질병 척결 나서
	9	출판예고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한다 단순정보 제공서 예약제도까지 연결돼야
서평	10	김준보 「한국근대경제사특강」 - 박영호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 하원호
	11	이병천 외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 신광영 법제연구원 「국역관습조사보고서」 - 최종고
	12	허승일 「로마시입문 - 공화정편」 - 김경현 조길태 「인도민족주의운동사」 - 김진식
	13	김일순 외 「의료윤리」 - 김영진
	14	평여우란 「중국철학의 정신」 - 정인재 블랑쇼 「미래의 책」 - 김성곤
	15	김용직 「한국현대사 해석 비판」 - 이승원
시집서평	16	이 인연의 땅에 그리는 꿈의 지형도 - 신범순 이 계절의 시집서평
출판화제	18	정보활용의 실제 알리는 책들 인기판다
	19	이색테마 중심의 전래설화 연구
	20	새로운 독서공동체 '작은 대학'
이 책 그 사람	21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낸 안도섭씨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 번역한 양역관씨
	22	「시간속의 도적」 낸 채영주씨 「소망은 내 지친 등을...」 낸 이정하씨
신간초	24	박종열 엮음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일본문학사상 명저사전」
세계의 책	26	현대예술에 끼친 한 사진작가의 영향 - 배병삼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38	200자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